

#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표리의(表裏衣)

## 합봉(合縫)에 관한 연구

구남옥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강의전담교수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국가이므로 효와 예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복식에 예의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남자 복식의 경우 포(袍)를 여러 벌 겹쳐 입음으로 갖추에서 오는 품위와 예의를, 여자 복식에서는 속옷을 겹겹이 입음으로 정숙함과 단정함을 나타내었으며, 여름에도 여러 벌을 겹쳐 착용하므로 예와 양반으로서 권위를 지켰다.

이러한 복식문화는 임진왜란 후부터 복제의 간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변하여갔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는 표리의(表裏衣) 두 벌을 합봉(合縫)하여 겹옷으로 만들어 한 벌로 마치 여러 벌 착용한 효과를 나타냈다.

표리의 합봉 현상이 나타난 복식의 종류로는 관복, 구군복, 원삼, 당의 등이 있다.

조선시대 관복인 단령(團領)은 조선 초기에는 홀으로 제작되어 답호와 철릭을 이의(裏衣)로 함께 착용하였고 직령은 별도의 포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직령이 단령의 이의로 용도가 변하여 단령과 함께 착용되었다. 이와 같이 두 벌의 포를 겹쳐서 입던 착용법이 조선후기에 와서는 단령과 직령을 합봉(合縫)하여 겹옷으로 만들었으며 한 벌을 입고도 두벌을 착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군복은 조선시대 무관의 군복의 일종이며 머리에 전립(戰笠)을 쓰고 동달이(同多里)를 입고 위에 전복(戰服)을 입은 다음, 허리에는 전대와 광대(廣帶)를 띠고 종아리에는 경대(脛帶)를 매는 차림이다. 이렇듯 동달이와 전복을 겹쳐

입던 풍속이 조선 말에 이르러 전복에 동다리의 소매가 부착된 형식으로 제작되어 마치 겹쳐 입은 듯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삼은 내외명부의 대례복으로 혼례복으로, 서민의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다. 유물을 살펴보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록 원삼은 표의와 이의를 홀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표의에 이의를 끼워 넣고 도련부분을 징군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 후 길은 선을 각각 대어 따로 만든 후 배래만 4겹으로 바느질한 과도기적 방식이 생겼으며 후대에 와서는 합봉하여 표리를 붙여 겹옷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당의는 명부의 소례복으로 궁에서는 상복으로 착용하였다. 당의 유물을 살펴보면 두 벌의 겹당의를 겹쳐 입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벌의 옷을 한 벌처럼 착용하기 위하여 거들지로 표리의 수구부분을 연결하기도 하였으며 표리의 겹고름을 함께 매므로 삼작고름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 말에 간소화 되었으나 이러한 합봉의 흔적은 겹당의에 삼작고름을 달아 중착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표리의 합봉 현상은 유교의 예사상과 실학의 실용주인 사상이 결합되어 겹겹이 입던 형식에서 벗어나 한 벌을 착용하지만 겹쳐 입은 듯 효과를 나타내는 착용법으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나라의 멸망이 있었기에 관복 형제의 변화가 가능하였고, 당시 진보되었던 재봉기술을 바탕으로 되었기에 합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